

# '기금운용본부 이전 백지화 발언' 규탄

〈국민연금공단〉

### 도의회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해당자의 공개 사과, 정부·새누리당의 공식 입장 발표 촉구"

전북도의회 더민주 국민연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백지화 발언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 주장에 문형표 공단 이사장이 공사와 필요성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또다시 전북도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면서 "공사와 논의가 없었던 문 이사장의 이번 손바닥 뒤집듯 노골적인 번복발언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여야 정권권 합의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2월이면 완공과 함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낙후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에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문 이사장의 발언은 다윈 법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의회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공사와 논의 자체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사사건건 별의별 구실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시도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중심의 금융프로젝트가 완성



전북도의회 더민주 국민연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백지화 발언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될 날만을 학수고대하던 도와 금융산업 육성 조래까지 제정한 전북도의회 입장에선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다"며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고 11사태 이후 상심에 빠진 도민들을 또 다시 무시하고 조롱하

는 처사를 거꾸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북도의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와 공사와 발언을 규탄하며 해당자의 공개 사과와 정부 및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본사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 도 문건위,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참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4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전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물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완수 위원장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물론 좌절과 고통의 순간들까지 그동안의 시간들은 분명 값진 거름이 되어서 이번 대회에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선수단 각자가 전북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남에서 열리며, 전북선수단은 2개 종목에 374명이 출전, 종합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국민연당,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현장간담회

국민연당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16일 국민연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주홍 쌀값폭락 특별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국민연당 의원들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농협 DSC를 방문, 벼수매 현장 참관과 추수시연을 진행한 후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4일 국민연당 쌀값폭락특별대책위원회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예상 수확량 조기발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 우선지급금을 산지 평균 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 더민주 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선·직제개편

### 허갑진 총무여성지원실장·신광영 홍보미디어지원실장 등... 국별로 1·2·3국 체제로 재편



허갑진 총무여성지원실장, 한수경 총무여성지원부장, 박기훈 조직지원실장, 유정주 민생정책지원실장, 신광영 홍보미디어지원실장, 권도운 역량강화지원실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당직자 채용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당직자 인선과 함께 외연확대에 나섰다. 도당 인사위원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허갑진(42) 전 도당 홍보기획국장을 총무여성지원실장으로, 한수경(30) 전 총무차장을 총무여성지원부장, 박기훈(51) 전 총무국장을 조직지원실장, 유정주(48) 전 조직국장을 민생정책지원실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 임명했다. 또한, 신임 홍보미디어지원실장에는 신광영(44) 전, 전주매일 정치부장, 역량강화지원실장에는 권도운(47) 전 김성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도당은 앞서 황현 도당 부위원장을 인사위원장으로 김명지·이행욱 부위원장과 안명수 사무처장으로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밖에 도당은 2017 대선승리를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총무여성지원실 밑으로 총무국과 여성국, 노인국(실버국)을 배치했으며, 조직지

원실에는 조직국, 청년국, 대학생국, 홍보미디어지원실에는 홍보국과 디지털소통국, 대외협력국, 역량강화지원실에는 기획국, 교육연수국, 노동국, 직능국을 민생정책지원실에는 민생정책국, 지방자치국, 을지기는민생실천국, 장애인국, 다문화국, 농어민국을 배치했다. 또한, 각 국별로 1국, 2국, 3국 체제로 확대재편하고 당직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이번 당직 인선에서는 자기사람 심기나 청탁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변화와 혁신이다. 도당 사무처가 낮은 자세로 당원을 섬기고 지역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국을 실제체로 개편하고 '지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도당 당직 인선과 직제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도당 운영으로 반드시 대선승리를 함께 전북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도의회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중 위원장, 익산)는 17일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기간은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이며 예산안 심사는 17일, 계수조정은 19일까지 진행된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라북도 5조 6,090억 원(제1회 추경 대비 704억 원 증가, 1.27%↑)의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정부추경 및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편성 ▲순도비 사업은 미반영하고, 도비는 중앙보조사업에 매칭재원으로만 활용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의 수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주요 재정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동안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0대 전라북도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에 구성돼 주요 재정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심사를 마치면 12월에는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